

응모작 10.

청년이 몰리는 흥덕구, 생활인프라는 따라가고 있는가? (SGIS 청년통계지도로 진단한 청주시 4개 구의 청년 정착환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청주시의 청년정책은 청년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청년이 어디에 모이고 어디에서 빠져나가는지를 공간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1인가구는 문화·체육·편의·의료서비스를 주거지 주변에서 개별적으로 이용하므로 생활인프라 접근성이 정착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의 단순 개수만 비교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이 항상 유리해 보이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사례는 시설 수를 청년인구 1만 명당으로 표준화하고, 청년 순이동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청년 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질문 청년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에 청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생활서비스도 분히 공급되고 있는가?

□ 추진과정

단계	SGIS 기능	활용 내용
① 수요 파악	청년통계지도	청년인구·청년 1인가구 비교
② 이동 진단	주거·이동	전입·전출 및 순이동 계산
③ 공급 비교	함께보기	문화·체육·편의·의료시설 결합
④ 표준화	조회 결과 재계산	시설 수 ÷ 청년인구 × 10,000
⑤ 우선순위	지도·차트 시각화	수요-공급 불균형 지역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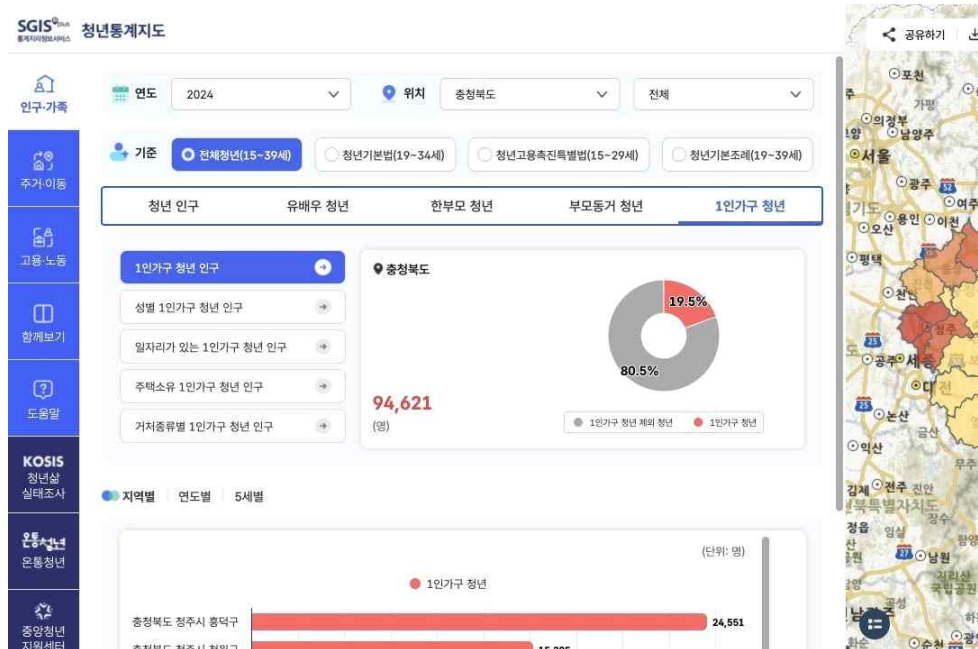


그림1. SGIS 청년통계지도에서 2024년 충청북도 청년 1인가구를 조회한 화면

분석 범위는 SGIS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청주시 상당구·서원구·홍덕구·청원구이며, 청년 연령은 서비스 기본 범위인 15~39세를 적용하였다. 인구·이동·시설 자료의 기준연도는 모두 2024년으로 통일하였다.

□ 추진내용

○ 청년 수요와 이동 분석

- 청년 1인가구는 홍덕구에 집중
2024년 홍덕구의 청년인구는 102,631명, 청년 1인가구는 24,551명으로 청주시 4개 구 중 가장 많다. 청년 가운데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3.9%로, 청원구 23.0%, 서원구 22.4%, 상당구 12.4%보다 높다.
- 유일한 대규모 순유입 지역
홍덕구는 청년 전입 18,161명, 전출 13,879명으로 4,282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서원구는 2,193명, 상당구는 1,276명, 청원구는 942명의 순유출이었다. 이는 홍덕구의 청년 생활서비스 수요가 현재 인구 규모뿐 아니라 신규 유입으로도 계속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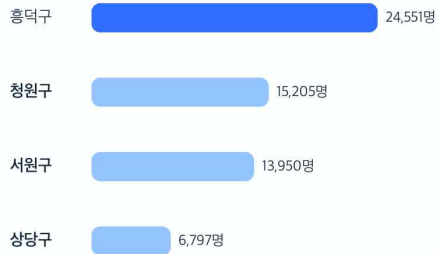
- 유일한 대규모 순유입 지역
홍덕구는 청년 전입 18,161명, 전출 13,879명으로 4,282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서원구는 2,193명, 상당구는 1,276명, 청원구는 942명의 순유출이었다. 이는 홍덕구의 청년 생활서비스 수요가 현재 인구 규모뿐 아니라 신규 유입으로도 계속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다.

청년은 흥덕구로 모이고 있다

청주시 4개 구의 2024년 청년 1인가구와 청년 순이동

청년 1인가구



청년 순이동(전입-전출)



자료: SGIS 청년통계지도(2024), 전체청년 15~39세

그림 2. 청주시 4개 구의 청년 1인가구 및 청년 순이동 비교

지역	청년인구	청년 1인가구	1인가구 비율	순이동
흥덕구	102,631	24,551	23.9%	+4,282
청원구	66,227	15,205	23.0%	-942
서원구	62,275	13,950	22.4%	-2,193
상당구	54,792	6,797	12.4%	-1,276

해석: 흥덕구는 ‘이미 청년이 많은 지역’인 동시에 ‘지금도 청년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따라서 고정된 시설 총량만으로는 체감 수요를 설명하기 어렵고, 청년인구 대비 공급 수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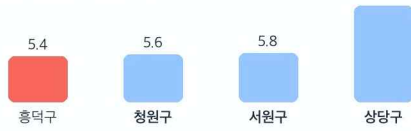
○ 청년인구 대비 생활인프라 분석

시설 총량은 인구 규모가 큰 흥덕구가 많아 보이지만, 청년 1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흥덕구는 문화시설 5.4개, 체육시설 31.4개로 모두 4개 구 중 가장 낮다. 편의시설은 18.7개로 청원구 다음으로 낮고, 의료기관·약국도 49.0개로 청원구 다음으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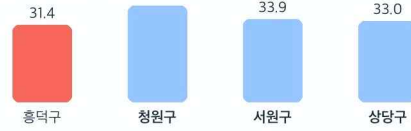
흥덕구 생활인프라는 청년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시설 수를 청년인구 1만 명당으로 환산하여 구별 규모 차이를 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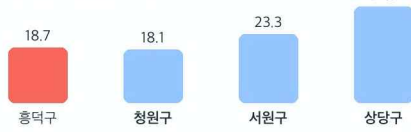
청년 1만 명당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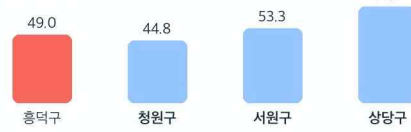
청년 1만 명당 체육시설



청년 1만 명당 편의시설



청년 1만 명당 의료기관·약국



주: 시설 수 ÷ 청년인구 × 10,000. 자료: SGIS 청년통계지도 함께보기(2024)

그림 3. 청년인구 1만 명당 생활인프라 비교

○ 생활인프라 종합지수 산정

지역	문화	체육	편의	의료·약국	종합지수
흥덕구	5.4	31.4	18.7	49.0	84.8
청원구	5.6	39.3	18.1	44.8	88.8
서원구	5.8	33.9	23.3	53.3	95.1
상당구	11.3	33.0	32.5	69.0	131.4

문화·체육·편의·의료기관의 청년 1만 명당 값을 각각 청주시 4개 구 평균=100으로 환산한 뒤 단순평균하였다. 가중치를 임의로 부여하지 않아 해석이 쉽고, 다른 도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다.

핵심 발견 흥덕구의 종합지수는 84.8로 평균보다 15.2% 낮다. 가장 많은 청년을 수용하면서도 1인당 생활서비스 공급은 가장 취약한 수준이다.

□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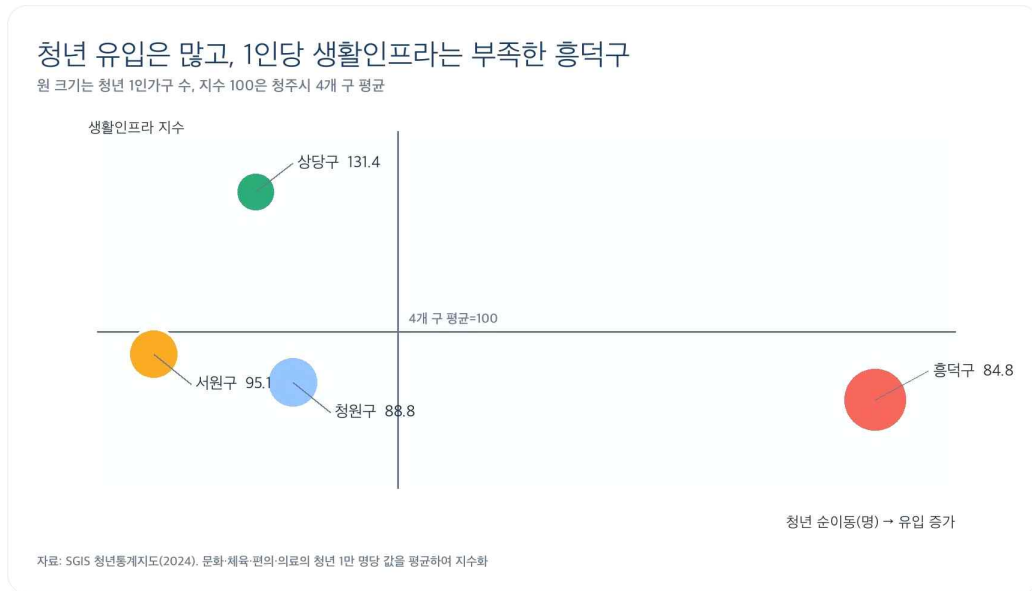


그림 4. 청년 순이동과 생활인프라 지수를 결합한 수요·공급 진단

○ 지역적 정책 우선순위

우선순위	지역	진단	활용 방향
1	흥덕구	대규모 순유입·낮은 공급	신규 청년생활 거점 우선 배치
2	청원구	1인가구 많고 의료·편의 취약	건강·행정 이동서비스 보강
3	서원구	청년 순유출 최대	대학가 문화·취업 연계 강화
연계	상당구	인프라 상대 우수·순유출	기존 시설의 광역 공동이용

○ ‘15분 청년생활 거점’ 적용

- SGIS 생활권역 통계지도로 오송·가정·복대 등 후보지의 도보·차량 15분 생활권을 설정하고 청년인구와 사업체 분포를 비교한다.
- 문화 프로그램, 생활체육, 행정상담, 마음건강·기초건강 서비스를 복합화하여 시설 신축 부담을 줄인다.
- 매년 청년 순이동과 청년 1만 명당 시설 수를 다시 산출해 서비스 확충 효과를 점검한다.

○ 활용성과 및 기대효과

첫째, 인구 총량 중심의 시설배치에서 벗어나 실제 청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을 수치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SGIS만으로 전국 시군구에 동일 지표를 적용할 수 있어 확산 가능성이 높다. 셋째, 청년정책·생활SOC·보건·문화 부서가 같은 공간지표를 공유함으로써 중복투자를 줄이고 우선순위를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 한계와 보완

본 분석의 시설 수는 시설의 규모·서비스 품질·대중교통 접근시간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는 SGIS 생활권역 통계와 현장조사, 이용자 설문을 결합해야 한다. 본 결과는 정책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1차 진단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